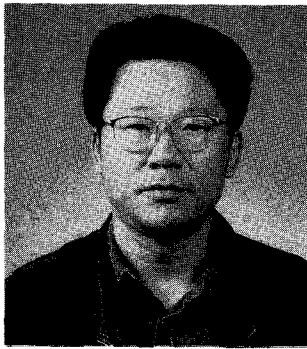


새해에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연구하고 협동합시다



유 일 준
천안 유일동물병원장

사슴은 부귀와 장수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사슴은 간이 크고 제3위가 작고 내장의 길이와 꼬리가 짧고 쓸개가 없으며 환경적응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서양인들은 7자에 행운이 있다고 하는데 1997년은 우리 양육인들에게도 많은 행운과 경사가 함께 안겨지길 고대해 본다. 1997년은 양육인에게 돈주머니가 더 커지고 걱정근심 사고가 없는 해이기를 다 함께 기원하자!

1970년대말 뉴질랜드의 사슴숫자는 겨우 10만여두를 넘고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200만두의 사육두수를 자랑하는 양육대국이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슴사육두수가 20여만두로 추정되는 바 사슴고기를 일반 식육처럼 취급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때 이번이 없는한 2010년이 되기전에 한국

은 약 250만두의 사슴이 사육되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녹용과 녹혈 그리고 사슴산물들이 조혈장기인 간장질환, 신경계질환 그리고 성장중인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게 탁월한 약효를 발휘하는 것이 입증된 바 있어 건강식품으로 무한한 잠재시장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상적인 사슴사육장의 조건은 15° 내외의 경사지에 흑한, 흑서를 피할 수 있는 장소이면 이상적이며 꽃사슴은 1두당 10평 레드디어는 1두당 20평 교잡종과 엘크는 1두당 30~50평의 넓이를 필요로 하며 소음피해가 적고 주택가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손님을 맞이하기에 불편이 적고 주위에서 먹이 채취가 용이한 마사토나 황토지대이면 사육장으로선 안성맞춤 일게다.

사육장의 철조망은 매쉬(망의 지름)가 작고 녹슬지 않는것이 좋고 운동장의 넓이가 넓을수록 각종 사고는 반비례하여 줄어든다는 것을 주지했으면 한다. 여기서 필자는 우기철의 녹용채취시 위생적이고 고객의 불편을 덜기위해 필히 절각장의 설치를 권장하며 번식철의 사고방지를 위해 작은칸을 만들어 놓는 것과 물이칸은 이동과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현대의 고객은 편리함과 청결성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함이 경쟁력제고가 아니던가! 현재의 조건이 위와같

지 못하다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개량함이 필수적이다.

사슴은 광주기(光週期)를 가진 짐승이어서 계절에 따라 생체리듬이 바뀌고 행동양태가 변화하는데 질병의 양태도 계절의 변화와 궤도를 같이 한다. 가을과 초겨울은 숫사슴에서 번식을 위한 맹렬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부상과 골절이 다발하고 오랜동안 먹이를 먹지도 않고 번식행위를 하기 때문에 체중도 대단히 감소한다. 특히 이 시기엔 관리자는 사슴장에 출입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겠다.

종록을 제외한 숫사슴은 사고방지를 위해 한칸에 한마리를 사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한 여건이라면 힘의 균형을 세밀히 관찰하여 힘이 엇비슷한 숫컷끼리 무리지어 사육해야 한다. 겨울은 17% 이상의 고단백사료, 미량광물질, 비타민 A·D·E가 요구되며 암사슴들중 임신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17~20%의 단백사료로 사육되어야 하는데 단백질의 수준이 9% 이하이면 새끼가 안배거나 분만되어도 새끼가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방풍시설에 유념하고 물이 얼지 않게 유의해야 하고 배수시설도 잘 정리하여 질겨거림을 방지함이 좋다.

가을, 초겨울의 질병 - 골절

가을과 겨울철의 질병은 폐염, 부제병, 장독혈증, 창상성심낭염, 관절염, 피부병, 유행성 출혈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골절의 처치에 대해 알아보자.

골절(뼈의 부러짐)은 주로 수컷에 의해 일어나는데 숫컷끼리의 싸움, 숫컷이 암사슴을 공격하거나 마취때 잘못넘어지거나, 언땅에서 넘어질때 생길 수 있다. 골절부위는 다리뼈, 갈비뼈(늑골)가 가장 빈발하며 목뼈, 골반뼈가, 때로는 대퇴골이 골절될 수도 있다. 대퇴골과 목뼈의 골절은 예후가 대체로 불량하다.

늑골이 골절되면 처음엔 골절부위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부어오르거나 수종이 생기며, 부러진 늑골이 흉막이나 복막을 뚫고 들어간 경우는 호흡곤란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수술로 늑골의 양끝을 잘라내고 복막이나 흉막의 봉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때에 복막염이나 흉막염, 폐농양(폐농양의 주된 원인은 타박상과 금속-철사등-에 찢려 생길수도 있음)의 발생이 없도록 충분한 항생제와 소염제, 영양제가 투여되어야 한다. 단순히 부러진 갈비뼈는 방치해도 된다.

가장 빈발되는 부위는 다리뼈중 앞다리에서는 무릎아래뼈(완전골)와 뒷다리의 비절의 아래뼈(부전골)인데 이 부위의 골절은 치료 효과도 양호한 편이다. 이곳의 골절 경우는 사슴을 마취후 부러진 부위를 잘 맞추고 탈지면으로 감아주고 그위에 붕대를 감은후 석고붕대나 석고붕대 보다 가벼운 라이트로 감아서 고정하는데 이때에는 발끝까지 석고붕대(또는 라이트)를 해주어야 붓는것(부종)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뼈가 피부밖으로 튀어나온 경우는 철저히 세척, 이물제거, 소독후 다량의 항생제를 뿌려주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뼈가 부스러진 조각이 있을 경우 철저히 제거해야지 덜 제거된 상태로 석고붕대를 할 경우 뼈조각이 베이킹(구슬)역할을 하여 뼈가 붙지 못하고 대부분 괴사(썩음)되어 결과적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 또한 뼈조각이 6cm 이상으로 2조각 이상이면 조각뼈(골편)를 제거한 후 핀(PIN)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석고붕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예후가 안좋을때가 많다. 골절수술후의 처치는 고단위 항생제 설파제 소염제를 10일이상 주사하고 석고붕대는 40일후 제거하면 되는데 단순골절의 경우는 예후가 양호하다.

초봄과 초여름까지의 질병들

초봄에는 무리중에 나이먹은 사슴들이 먼저 낙각되어 낙각되지 아니한 젊은사슴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해를 받거나 심하면 폐사까지 되므로 분리 사육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미량 광물질 비타민이 추가 급여되어야 하고 식모 증(털을 먹는것)으로 인해 위장내에 모구(Hair Ball)가 작게는 야구공에서 크게는 농구공 크기로 뭉쳐 설사·식욕부진 등으로 아위게 되어 폐사하게 되는데 모구는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 시기엔 과다한 단백질의 급여나 과다한 콩의 급여는 요도결석이 숫사슴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요도결석이 심해지면 배뇨가 곤란해지거나 노폐의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는 염화암모늄이나 키톤(상품명임)을 투여해야 하는데 뇨결석은 겨울철에 물이 얼어 음수가 부족했을 때 더욱 빈발한다.

늦은봄 부터는 월동하던 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여서 소위 파이로병(정확한 병명은 타일레리아. 바베시아증이다)이 발생하여 혈액이 사라지고 여위어 마침내는 기립불능이 되는데 이병은 현미경으로 혈액을 염색한 것을 검사하면 쉽게 진단되며, 치료제로는 파마킹, 프리마킹, 베레널 중 선택하여 주사하고 증상이 심한것은 수혈해 주어야 하는데 수혈량은 1500~2000cc이다. 정확히 치료하면 예후는 대부분 양호하다. 치료기간중엔 안정이 요망되며 테라마이신, 비타민, 철분의 주사가 필요하다.

봄에는 낙각이 시작되는데 양쪽의 낙각이 동시에 떨어지면 금상첨화이겠으나, 한쪽이 낙각된 후 다른 한쪽이 3일이상 낙각이 지연되는 경우는 마취를 시키거나 물이칸에 넣어 강제적으로 낙각시켜야 한다. 그냥 내버려두면 각관에 염증을 일으켜 녹용이 기형이 되거나 가지수가 줄어들게 된다. 봄철의 사슴유지를 위한 조단백질의 요구량은 엘크의 경우 15~17%이다. 이상적인 녹용생산을 위해서는 엘크의 경우 조단백질 수준이 18~22%이다.

초여름과 질병 그리고 관리

늦은봄인 5월부터 양록인에게는 신나는 사

슴의 수확기이다. 새끼들이 예쁜모습으로 태어나고 장대하게 자란 녹용을 잘라서 주머니 사정이 년중 가장 호황기가 아닌가! 그러나 실제 사슴들에게는 년중 가장 가혹한 시기이다.

암사슴은 어마어마한 산고를 겪어야 하고, 숫사슴에게는 보물단지처럼 위하는 녹용을 잘 리우는 수난이 필수코스이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기온이 올라가 괴롭고 각종 기생충들이 시도때도 없이 달려들고 각종 세균과 곰팡이는 건강을 위협하고... 그러나 우리 양록인은 사슴을 잘 보살핀 수고의 댓가가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댓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녹용절각은 제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꽃사슴은 낙각후 60~70일, 레드디어는 70~80일, 엘크는 80~95일에 녹용을 채취하여야 한다. 특히 위생적으로... 녹혈은 체중의 1.4% 이내로 채혈해야 한다. 절각은 서늘한 시간대에 행하여져야 하고, 마취제의 종류에 따른 용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허약한 사슴이나 어린사슴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정상 마취용량으로도 강하게 작용하여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다. 불결한 절각은 과상풍을 발생케 할 수 있는데 과상풍의 증상은 다리에 마비가 와서 뻣뻣하게 걷고 목도 뻣뻣해지며 침을 흘리며 음식물을 잘 삼키지도 못하며 눈동자도 고정된다. 치료제는 과상풍항독소(테타누스 앤티톡신)와 페니실린, 해열제, 간장약을 주사한다. 또한 비위생적인 절각은 골수염을 일으키는데 골수염의 치료는 염증부위를 수술로 제거하고 충분한 양의 항생제를 수술부위에 파리기피제와 함께 도포하고 주사해 준다.

사슴은 대부분 자연순산을 하나 때로는 난산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원인은 새끼자체가 너무 클때, 역산, 자궁경관개장부전, 자궁자체의 기형, 새끼의 다리나 머리 위치 잘못으로 안펴지거나 돌아갔을때, 새끼가 죽어서 부패

되었을 때인데 제2과수(양수)가 터진지 2시간이상 분만되지 않을 경우는 일단 난산으로 간주하고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본인의 경험으로는 파수후 4시간~5시간 까지도 조산을 해주면 대부분의 새끼사슴은 살릴 수 있었다.

새끼사슴의 설사는 양복인을 무던히도 괴롭히는 사항인데 그 원인은 환경의 오염이 주원인이고, 어미의 지나친 관심, 어미의 유방염 등인데, 생후 20시간이내에 소나기를 많이 맞아도 설사의 원인이 된다.

새끼의 설사는 원인을 판별해서 치료해야 함이 원칙이나 대부분 항생제, 설파제, 정장제, 유산균제제를 투여하면 양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암사슴의 구충제투여는 분만종료후부터 10월전까지 함이 효과적이고 숫사슴의 구충시기는 2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권장되는 시기이다. 구충제는 이보메틴(상품명 이보멕)제제가 좋다.

끝으로 지금은 암사슴들은 임신초기인고로 조단백질의 함량은 17~20% 이어야 하는데 암사슴을 8% 미만의 조단백질사료는 불임의 원인이 되며 또 임신되어 분만되어도 새끼의 폐사율이 50%에 이르기도 하며, 조단백질의 양이 11%미만은 자륙폐사율이 25%에 이를 수 있다.

양록인이며, 1997년은 함께 활짝 웃는 해가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더욱 연구하고, 협동합시다. 「한국양록」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우리앞에 있으니!

(필자약력)

- 1951년 천안출생
- 서울성동고등학교졸. 건국대학교졸. 건국대 대학원졸
- 유일동물병원, 유일사슴목장 경영중
- 연락처 : (0417) 565-5297

사색의 트랙

자녀 만들기

건강한 자녀는 사랑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명량한 자녀는 화목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뜻이 높은 자녀는 희망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용기있는 자녀는 창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자신감있는 자녀는 격려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강한 자녀는 인내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너그러운 자녀는 이해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겸손한 자녀는 분수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 정(情)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현명한 자녀는 교육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절도있는 자녀는 매와 통제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독불장군 자녀는 지니친 기(氣)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건전한 자녀는 도덕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예의바른 자녀는 바른 언동(言動)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무례한 자녀는 그릇된 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희생심이 많은 자녀는 봉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의심하는 자녀는 거짓말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정직한 자녀는 믿음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유모스런 자녀는 웃음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소박한 자녀는 절약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사치스런 자녀는 낭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